

인사말씀

상큼한 꽃향기와 따스한 햇살이 지난 시간의 수고로움을 어루만지며 편안한 봄소식을 전해오고 있습니다. 희망을 열어가는 좋은 절기에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 반가운 마음이 가득합니다.

우리나라와 세계의 불교관련 산업, 그리고 문화를 한 자리에서 만나는 서울국제불교박람회에 우리 종단이 든든한 버팀목으로서 함께한 지도 어느새 5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으로 이제는 불교산업과 문화발전의 튼실한 동력이 되었다는 모두의 자긍심도 한층 높아진 듯합니다.

그동안 서울국제불교박람회는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와 서울특별시의 긴밀한 협조에 힘입어, 양적 성장과 더불어 내용의 구성에서도 불교산업 성장과 전통문화 콘텐츠개발이라는 알찬 성과를 이루며 당당히 한국불교의 3대 축제로 자리잡아 가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 최대 불교박람회인 ‘샤먼 국제 불사용품 전람회’에 한국관으로 참가하여 한국불교의 우수성을 알리고 국제교류를 확대하는 쾌거를 이루어 내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성취들이 더해져 올해는 국내외 참가업체 모두 규모나 분야에서 확장과 다양성을 갖추게 되었으며, 특히 국제교류전의 경우 전년에 비해 두 배의 규모로 여러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있는 진전과 성과를 바탕으로 더 많은 시민에게 유익함을 선물하고자, 여느 해보다 진력을 다하고 참신한 박람회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올해의 주제인 ‘일상이 빛나는 순간, 수행’은 최근 몇 년간 대중들의 마음을 다독여온 힐링의 가치를 담아내고, 혼잡하고 어지러운 세상에 휘둘리지 않도록 일상 속에서 자신을 찾아가는 습관, 즉 수행법을 제안하면서 여러분을 편안하고 친숙하게 안내해 줄 것입니다.

수행의 과정에 필요한 여러 도구를 망라한 전통공예분야를 집중적으로 표현하고, 특히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각종 의식구는 오랜 세월동안 전통공예의 산물로써 전통공예의 맥을 이어왔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017서울국제불교박람회가 제안하는 다양한 수행법과 전통공예를 통해, 행복한 나를 채우는 수행법을 찾아 일상이 빛나는 순간을 담아가시기 바랍니다.

불교계 최대 예술축제로 거듭난 붓다아트페스티벌 또한 한국과 세계의 불교미술시장의 허브를 꿈꾸며, 지난 5년간 괄목할만한 성장과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올해는, 해외 불교미술작품의 전시로 국제성을 가진 아트페어로 더 크게 도약하는 한 해가 될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항상 성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소중한 노력의 과정에서 항상 함께 해온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재청, 그리고 서울시 관계자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마음을 드리며, 이웃과 공동체의 행복이 넘치는 너그łość과 나의 삶을 빛나게 하는 지혜를 얻어 가시기를 기원합니다.

불기2561(2017)년 3월 23일
서울국제불교박람회 대회장·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합장